

2024년 경기도예술지원 2차공모
〈경기에술 생애 첫 지원〉, 〈원로 예술활동지원〉
문학 분야 심의평

2024. 5. 21.

심의위원장

김영호 (서명)

심의위원

문혜원 (서명)

심의위원

허연 (서명)

2024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 문학 분야 심의평

‘경기예술생애첫지원(문학)’에는 총 158건이 접수되었고, 심의위원은 접수된 작품 중에서 지원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작품을 제외한 후, 12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심의의원들은 각자 응모 작품 전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작품별 심사평과 점수를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개별 심의를 완료하였다. 그 후 대면 심의에서는, 심의 위원들의 개별 심의 점수를 모두 더한 후,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였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모두 해당 작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충분한 토의와 점수조정을 거쳐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심의 대상이 된 작품들은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기타 등으로 나뉘었는데 아동문학 분야에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것은 아동문학 분야를 동시, 동화만이 아니라 그림책, 청소년문학, 학습도서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아동문학의 작가층이 두텁고, 창작 역시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와 소설에 비해 수필의 응모 편수가 적다는 것 또한 특기할 만했다. 보다 전문적인 창작집을 만들고 싶다는 작가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본 예술지원 사업이 작가들로 하여금 그간의 작품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문학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4.5.21.

심의위원

허연 (시인, 매일경제 문화선임기자)
조용호 (소설가, 前세계일보 문학담당기자)
문혜원 (아주대학교 교수)

2024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 원로 예술활동 지원 】 문학 분야 심의평

‘원로예술활동 지원’에는 총 88건이 접수되었고, 심의위원은 접수된 작품 중에서 지원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작품을 제외한 후, 9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원로예술활동지원(문학)사업 역시 경기예술생애첫지원(문학)사업과 마찬가지로 1차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각각 응모 작품 전부를 꼼꼼히 읽고, 작품별 심사평과 점수를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개별 심의를 완료하였다. 대면으로 이루어진 2차 심의에서는, 심의 위원들의 개별 심의 점수를 모두 더한 후,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였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의 위원 모두가 해당 작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충분한 토의와 점수 조정을 거쳐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기타의 장르 중에서 시 응모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수필, 소설 순서였다. 아동문학 건수는 매우 적었는데, 이는 작가의 연령적인 특징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모든 장르에서 여전히 글을 쓰고 그것을 완결된 책으로 묶어내려는 의지와 성실함은 대부분의 작품이 가지는 특징이었다. 응모해주신 작가들의 열의와 정성에 감사드린다.

2024.5.21.

심의위원	허연 (시인, 매일경제 문화선임기자)
	조용호 (소설가, 前세계일보 문학담당기자)
	문혜원 (아주대학교 교수)